서구 '마을 BI'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새바람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개최
정책 방향·발전 가능성 논의
신규단체 공모 참여율 47% ↑
혁신적 시도로 확산 성공사례

광주 서구가 주민 중심의 생활정부 실현을 위해 도입한 '마을 BI(Brand Identity)' 사업이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신규단체 참여율이 평균 27%에 그쳤던 반면 올해는 47%로 크게 향상됐다.

서구는 지난 21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18개 동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주민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했다.

'상생마을' 금호1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나눔활동을 통해 주민 간 상생을 꾀하고 있으며 시영1차아파트 입주자들은 공유주차 활성화, 상생나눔장터 등으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품격높은 인문마을' 금호2동은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체험형 인문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함께잇다 안전마을' 화정1동은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만들어 생활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 '문화놀이터 화사마을' 화정4동은 불법투기와 악취 문제가 심각했던 통학로를 화단으로 조성해 마을 분위기를 바꿨으며, '전통문화 찬란한 노을마을' 서창동은 BI를 이름으로 활용한 '노을이네 수선댁'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의류수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구는 마을자치공동체 포럼을 개최해 마을 정책 방향과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포럼의 좌장으로 참석한 협치전문가 유창복 성공회대 교수는 "서구 각 동별로 상징적 슬로건을 담아 만든 BI를 주민들이 자치활동의 틀로 세팅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서구의 혁신적인 시도들이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로 전파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민현정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마을 BI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세큰대(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를 통해 육성한 마을활동가 등 서구의 정책은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로 확산 가능한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마을공동체를 지키고 주축이 돼 활동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가 마을자치의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귀한 자리였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따뜻한 생활정부 실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34개가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제6기 상임회장 도시로서 다양한 협력사업과 정책 개발 등을 주도하며 주민자치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내년 장애인 일자리 254개 지원
남구, 일반 80·복지 124·특화 50

광주 남구는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2025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일자리를 254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남구가 내년 한 해 동안 지원하는 사업은 유형에 따라 일반형 80개와 복지형 124개, 특화형 50개 등이다. 일반형과 복지형은 구청에서, 특화형은 민간 위탁 수행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먼저 일반형 일자리는 구청과 17개동 행정복지센터 등지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맡는다. 주 5일 40시간과 20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및 시간제 일자리는 각각 45개와 35개이다.

복지형 일자리는 124개로, 주 14시간씩 한 달간 총 56시간을 일하는 자리이다. 주로 우편물 분류를 비롯해 환경 정리,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친다.

일반형과 복지형 일자리 참여 조건은 남구에 주민 등록 중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가운데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이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특화형 일자리는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 5개와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45개를 제공한다.

복지 연계형 일자리는 매주 14시간씩 한 달간 총 56시간을 근무하며, 도서관 사서 보조를 비롯해 반려동물 돌봄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돕는 일자리는 주 5일간 25시간씩 근무한다.

특화형 일자리 참가자 모집은 오는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남구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준명 기자**

골목형 상점가 9곳 추가 지정
광산구, 상권 활성화 기반 확대

광주 광산구가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2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골목형상점가 9곳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광산구는 2021년 1호 지정 이후 올해만 21곳의 골목형상점가가 늘어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으로 밀집한 구역 중 지자체가 정한다.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공모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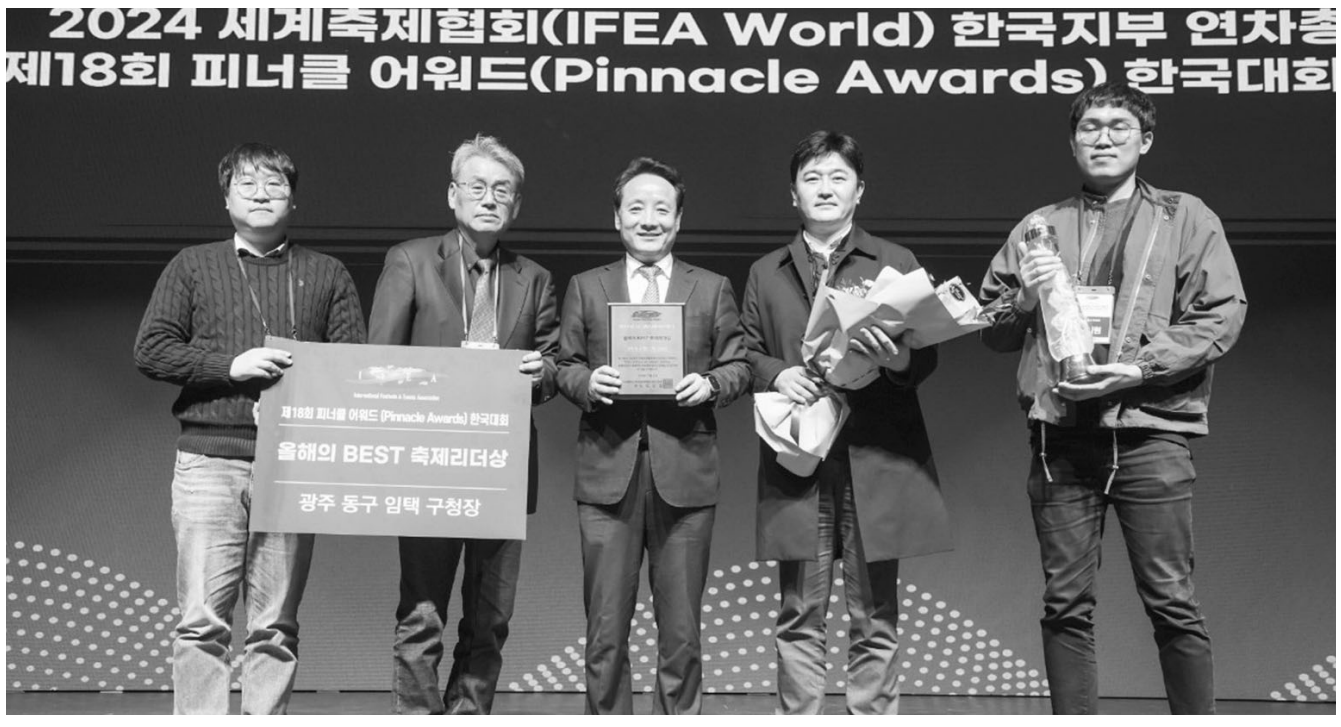
광산구는 지난 9월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공개모집을 거쳐 심의를 통해 △송정 다누리(송정공원역~송정다누리센터) △송정 우정(송정5일시장 인근) △달아실(사암로입구 사거리 골목) △비아로(비아호반아파트~비아동행정복지센터) △비아중앙로(비아5일시장 인근) △LC타워거리(첨단엘씨타워 및 인근 상가) △앰코로(앰코로 35 일대) △신가동(신가지구사거리 일대) △운남7단지먹자거리(운남7단지 아파트 건너편 일대) 등 총 9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지난 8월 골목형상점가 9곳과 상점가 1곳 등을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지정으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및 상점가는 총 23곳이 됐다.

광산구는 골목형상점가 확대와 더불어 상인 주도의 다양한 상권 활성화가 시도될 수 있도록 정부 공모사업 정보 제공, 전문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문, 안내문 발송 등으로 골목형상점가 내 개별 상가에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안내하고, 시민의 골목형상점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도 추진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으로 광산구는 올해만 21곳의 골목형상점가가 늘어나게 됐다"며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이 주도해 상권의 특색을 발굴하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광주 동구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충남 금산군 다락원에서 열린 '제18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금상'과 '올해의 베스트 축제 리더상'을 수상했다. **광주 동구 제공**

동구, 피너클 어워드 2개 부분 수상 '쾌거'

'금상', '올해의 베스트 축제리더상'

광주 동구가 지난 20~21일 충남 금산군 다락원에서 열린 '2024 세계축제협회(IFEA World) 한국지부 연차총회 및 제18회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 한국대회'에서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 부분 '금상'과 '올해의 베스트 축제 리더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연차총회와 함께 개최된 제18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는 총 16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50개 지방자치단체와 재단, 70개 축제가 공모에 참여했다.

광주 동구는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로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0월 2~6일 닷새간 열린 충장축제는 △청년기획단 '찐이 2기' △조선대학교 K-컬처공연기획학과와 함께하는 '충예기획단'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시민 기획 프로그램' △13개 동 행정동 주민 기획·참여 퍼레이드 △대규모 관람객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주민 그동안 관(官) 중심의 축제에서 주민 주도형 축제로 변화를 꾀했고, 그 변화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와 아시아지부에서 지난 1년간 개최된 축제를 대상으로 가장 우수한 축제 및 리더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베스트 축제리더상(기관장상)'도 수상, 올해 충장축제의 성공적 추진에 화룡점정을 찍었다.

임택 동구청장은 "충장축제가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면서 "올해 축제로 안주하지 않고 내년 충장축제를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북구,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광주 유일…민관 정책협의회 호평

광주 북구는 '제6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거버넌스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한 이번 평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해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됐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기관별 △기반 정비 △지원 수준 △정책 성과 △거버넌스 수준 등 4개 부문 17개 지표를 평가해 총 9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도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계획'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자생력을 높였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올해 출범시킨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협의회' 운영은 민관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한 우수사례로 호평받았다.

이에 따라 북구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를 인정받으며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우수상 수상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 유기적인 민관 협력 네트워킹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민관 거버넌스 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선정
서구, 광주·전남권 유일 재인증

광주 서구가 광주·전남권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11회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직장 내 독서문화 활성화 및 직원과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를 정착시킨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서구는 '내 곁에 도서관, 책 읽는 서구, 행복한 서구' 독서경영 비전을 내세우고 독서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자발적인 독서 참여, 꾸준한 독서 생활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 나눔 활동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올해 사업 중 △독서리그 '내 인생 책을 소개합니다' △사내 독서 동아리 운영 △베스트셀러 '공부머리 독서법' 최승필 작가와의 만남 △독서문화답사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공유서가: 책 읽는 가게' 운영 등이 호평을 받았다.

한미 도서관과장은 "직원들이 책을 통해 마음의 크기를 키우고 역량을 강화해 조직의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독서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직원의 학습과 성장을 돕고 발전하는 광주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